

#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  
(hylim@kiep.go.kr, Tel: 044-414-1293)
- 문진영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 이민영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연구원  
(mylee@kiep.go.kr, Tel: 044-414-1092)
- 이성희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 차 례 ●●●

1. 배경
2.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급 분석
3. AIIB 추진현황 및 지분을 추정
4. 다자개발은행(MDB)의 특징과 책임성·투명성 보장 제도
5. 주요 쟁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 주요 내용 ●●●

- ▶ [배경]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뒷받침, 지방정부와 건설업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제도적 틀 마련, 투자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AIIB는 미·일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한 중국 중심 금융질서 형성의 첫 단추로 평가되고 있음.
- ▶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급]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는 2010~20년 중 8조 달러(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프라 개발자금 공급은 양자·다자 개발기금의 경우 2004~13년 중 총 2,360억 달러(연평균 236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 ADB의 인프라개발 지원규모도 2010~13년 연평균 120억 달러에 불과하고 에너지(54억 달러)와 운송·ICT(53억 달러) 분야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ADB 전체사업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은 최근 4년간 60% 수준을 유지함.
- ▶ [AIIB 지분율 추정 등] 한국의 지분율은 시장환율 및 PPP 환율을 적용한 GDP 가중치(6:4)로 계산할 경우, 역내외 국가 확정 및 지분 분배율에 따라 3.35~3.93%(5~9위)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중국은 기존 다자개발은행(MDB)이 갖춘 정교한 거버넌스와 표준화된 규율 못지않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AIIB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ADB·AIIB 상충 논란, 통일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국제협력 강화, 국내기업 정책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ADB는 빈곤퇴치 등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하며, 지역적으로는 AIIB가 중앙아시아 등은 물론 ADB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북아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기존 MDB와의 경합보다는 상호보완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됨.
  -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 다자기구인 GTI를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전환함으로써 AIIB의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차입 회원국(NBVI)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IIB 운영, 사업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인프라 투자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해외건설과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스마트 인프라솔루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 강화가 시급함.

## 1. 배경

- 중국은 투자위축에 따른 과잉 건설부문 활용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sup>1)</sup> 지원, 지방정부와 건설업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 달러 중심 투자자산의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亞投行) 설립을 주도함.
  - AIIB는 World Bank, 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자금 공급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이 Bretton Woods 체제에 기초한 World Bank, ADB 등 미·일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금융질서 형성의 첫 단추로서 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sup>2)</sup>
  - 일각에서는 일대일로를 마셜플랜(1947~51), AIIB를 Bretton Woods 체제에 비유하고, AIIB 출범 논의가 공식화된 2015년 3월을 금융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sup>3)</sup>
- 한국은 AIIB 합류(3. 27)로 신금융질서로의 주도적인 참여는 물론 우리 기업의 건설 참여, 통일재원 조달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편익이 기대됨.
  - 우리나라는 도로·철도·등 토목은 물론 통신·전력·에너지 개발 등에 상당한 인프라건설 기회가 창출될 것이며, 특히 IT 강국으로서 스마트인프라솔루션 제공으로 차별화가 가능함.
  - AIIB 자본금이 1,000억 달러라면 그중 10%(100억 달러)만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배분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동북아개발은행(자본금 50억 달러)의 자금공급 능력을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수급,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투명성 보장제도, AIIB 관련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AIIB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보아오포럼(2014. 4)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앙아시아(육상)와 동남아·인도양(해상)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 주창.

2) Bloomberg(2014. 5. 12), "China's \$50 Billion Asia Bank Snubs Japan, India"; 『明報』(2014. 5. 6.), 「華主導亞投行 日本印度無份」.

3) 『多維新聞』(2015. 4. 4), 「亞投行解读陷误区 中国需打破心魔」.

## 2.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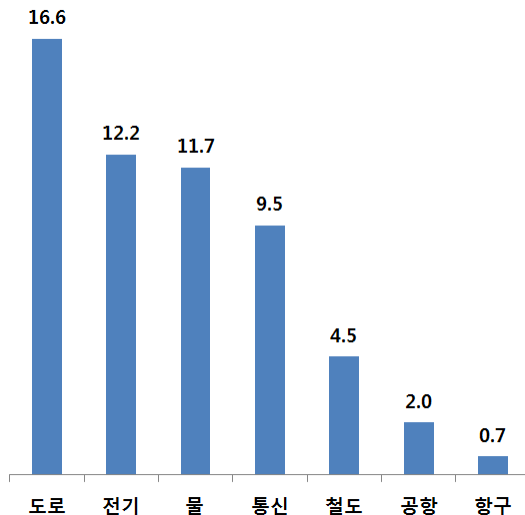
### 가. 인프라 개발 수요전망

■ [글로벌] 2013~30년 중 전 세계 인프라 개발에 총 57조 달러(연간 3.2조 달러)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며, 분야별로는 운송(41.5%)과 전력(21.3%) 비중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sup>4)</sup>

-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 전망치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인프라 개발에 투자된 자금(36조 달러)보다 약 60% 늘어난 수준임.
- 한편 PwC는 글로벌 인프라<sup>5)</sup> 시장규모(연간)가 2013년 4.2조 달러에서 2025년 9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아태지역이 전체의 60%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함(그림 2).<sup>6)</sup>

그림 1. 글로벌 인프라 투자수요 전망(2013~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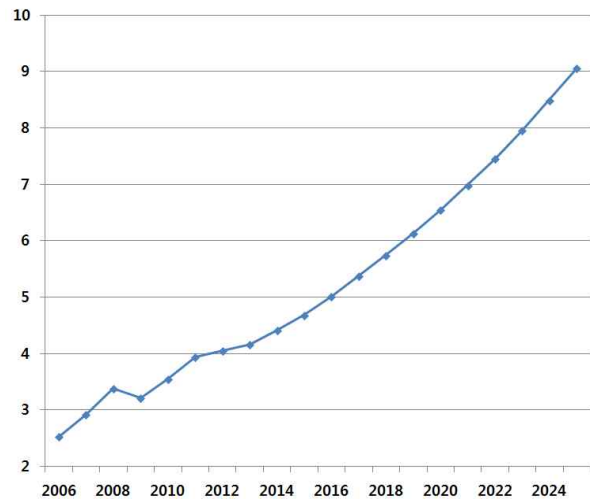
(단위: 2010년 불변가격, 1조 달러)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McKinsey(2013), p. 14.

그림 2.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 전망

(단위: 경상가격, 1조 달러)



자료: PwC Outlook to 2025 Data Modeller, <http://www.pwc.com/gx/en/capital-projects-infrastructure/publications/oxford-economics/modeller.jhtml>(검색일: 2015. 4. 20).

4) McKinsey(2013), "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5) McKinsey(2013)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전망에서는 운송(도로, 철도, 공항, 항구), 전력, 물, 통신 등의 분야가 포함된 반면, PwC의 전망은 extraction(석유, 가스 등), utilities(전기, 통신, 물 등), manufacturing(화학, 중금속 등), transport(철도, 도로 등), social(병원, 학교 등) 5개 분야를 포함함(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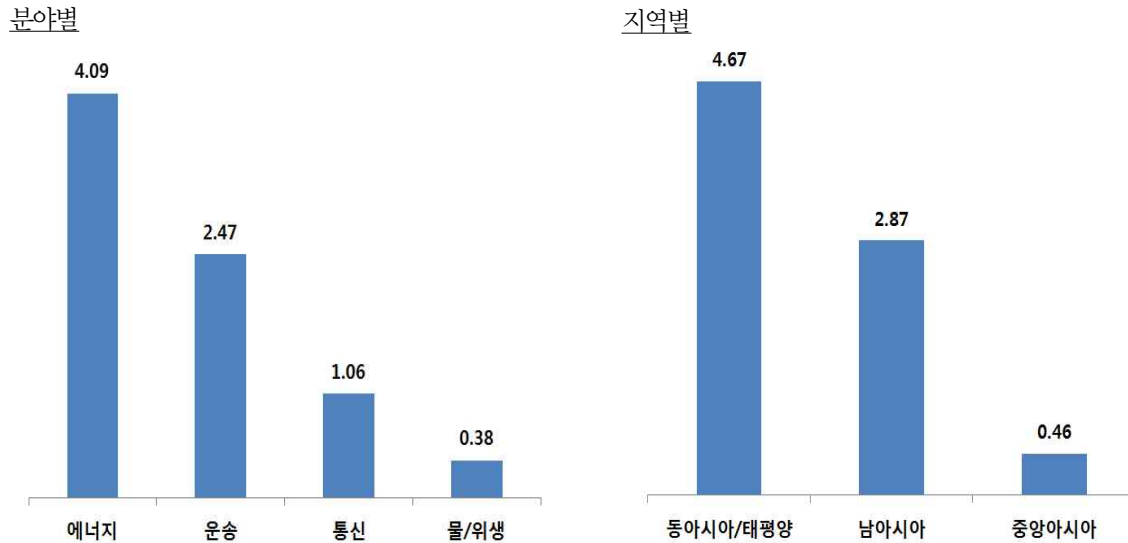
6) PwC(2014a), "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 PwC(2014b), "Developing Infrastructure in Asia Pacific: Outlook, Challenges and Solutions."

■ [아시아] ADB·ADBI<sup>7)</sup>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sup>8)</sup>의 인프라 개발<sup>9)</sup>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0~20년 중 약 8조 달러(매년 7,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함(그림 3).<sup>10)</sup>

- 이 중 68%(5.4조 달러)는 신규 수요이며, 에너지·전력과 도로부문이 각각 전체의 51%와 29%로 가장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이 전체의 58%(4.67조 달러), 남아시아 36%(2.87조 달러), 중앙아시아는 6%(4,600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함.
-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세계 중하위 수준의 인프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 내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그룹간 인프라 개발 격차가 현저함(참고 2).

그림 3. 아태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예측(2010~20년)

(단위: 1조 달러)



자료: ADB, ADBI(2009), p. 167.

■ 한편 중국 민생증권(民生證券)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계획 및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총투자규모는 약 1.04조 위안(1,66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4,000억 위안(645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2015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sup>11)</sup>

7) ADB, ADBI(2009),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8) 중앙아시아 7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태평양 지역 7개국 총 30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 개발에는 운송, 에너지, 통신, 물·위생 분야를 포함함.

9) 신규개발과 기존 인프라의 유지·교체 포함.

10) 한편 Bhattacharyay(2010)는 2010~20년 중 아시아 32개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8.2조 달러(매년 7,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11) Xinhua(2015), “‘Belt and Road’ Initiative Turning Point for Chinese Economy: Expert.” (April 5)

## 나. 인프라 개발자금 공급현황

■ OECD<sup>12)</sup>에 따르면 2004~13년 중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sup>13)</sup> 개발을 위해 총 2,360억 달러의 양자 및 다자 간 개발자금이 제공되었음(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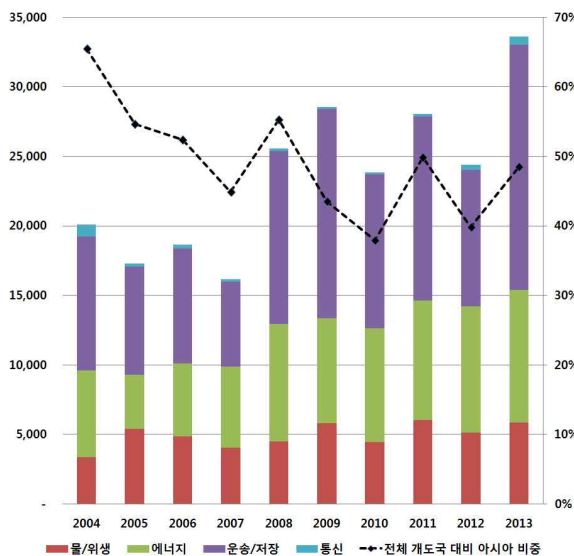
- 이 중 ODA는 59%(1,400억 달러), OOF는 41%(960억 달러)이며, 분야별로는 운송·저장(1,100억 달러, 47%)과 에너지(730억 달러, 31%)에 집중됨.
-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자·다자 지원은 2004년 200억 달러에서 2013년 336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전체 개도국의 인프라부문 지원 대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48%로 오히려 저하됨.

■ ADB가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지원하는 자금규모<sup>14)</sup>는 연간 약 120억 달러(2010~13년 평균)에 달하며, 주로 에너지(연간 54억 달러)와 운송·ICT(연간 53억 달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그림 5).

- ADB 전체사업 대비 인프라 분야의 비중은 최근 4년간 60% 수준을 유지함.

그림 4. 대(對)아시아 인프라 분야 개발자금(ODA+OOF) 현황

(단위: 좌축-2013년 불변가격 백만 달러, 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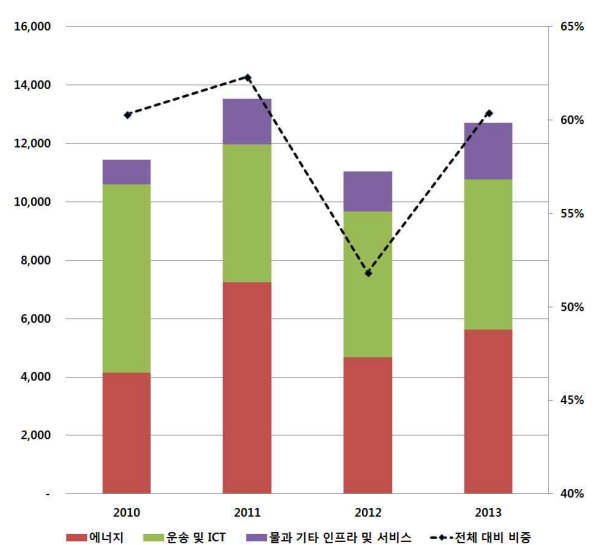


주: commitment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5. 4. 13).

그림 5. ADB의 인프라 분야 지원현황

(단위: 좌축-백만 달러, 우축-%)



주: Sovereign and Nonsovereign Approvals including Cofinancing  
자료: 2010~11년 수치는 ADB Annual Report 2011, 2012~13년 수치는 ADB Annual Report 2013 참고.

12) OECD DAC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보고되는 31개 공여국(DAC 28개 회원국, 3개 비회원국)과 35개 다자간 기구 및 기금이 제공한 ODA(공적개발원조)와 OOF(기타공적자금)를 합한 것임.

13) OECD DAC CRS에서 지칭하는 인프라는 사회·경제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지만, 비교상의 편의를 위해 ADB, ADBI(2009)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수요 예측에 사용된 에너지, 운송, 통신, 물·위생 분야 통계를 추출하여 범위를 일치시킴.

14) 비교상의 편의를 위해 ADB 연차보고서에 명시된 분야별 지원액 중 ADB, ADBI(2009)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에너지, 운송 및 ICT, 물과 기타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통계를 추출하여 범위를 일치함.

### 3. AIIB 추진현황 및 지분을 추정

■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AIIB 설립을 제안한 이래, 2015년 4월 15일 한국을 포함한 총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됨(표 1).<sup>15)</sup>

- 설립목적은 A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 연결성과 경제통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임.<sup>16)</sup>

■ [추진경과]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간의 MOU 체결(2014. 10. 24)을 통해 베이징<sup>17)</sup>에 본부를 둔 AIIB 설립에 합의하고, CICC 前이사장 金立群(Jin Liquan)<sup>18)</sup>을 임시 사무총장으로 지명(초대 AIIB 총재로 유력시)함.

표 1. AIIB 설립 추진 경과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3년 10월       | 시진핑 주석과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시 AIIB 설립 제의   |
| 2014년 10월 24일   | 21개국 MOU 서명으로 예정창립회원국 확정(본부 베이징)   |
| 2015년 3월 27일    | 한국 AIIB 예정창립회원국 참여 결정, 중국에 서한 통보   |
| 2015년 3월 말      | 창립회원국 모집 마감  |
| 2015년 4월 27~28일 | 한국 AIIB 4차 교섭대표회의의 참석(중국 베이징, 지분을 및 설립협정문 제정 등 협상<br>* 1차(중국 쿤밍, 2014.11), 2차(인도 뭍바이, 2015.1), 3차(카자흐스탄 알마티, 2015.3) |
| 2015년 6월        | 협정문 서명   |
| 2015년 하반기       | 창립회원국들이 국내 비준절차 진행   |
| 2015년 말         | AIIB 공식출범 예정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년 3월 27일자) 및 AIIB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된 총 57개국 중 아시아 26개국, 유럽 20개국, 아프리카-중동 10개국, 남미(브라질) 1개국으로 구성됨.
- 지배구조는 총회(Board of Governors, 중국명칭 理事會),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중국명칭 董事會), 사무국(Management)으로 구성하며, 기존 MDB의 모범 사례를 준용하여 차후 확정<sup>19)</sup>할 예정임.
-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 1,000억 달러, 초기 청약자본금(subscribed capital) 500억 달러, 납입 자본금(paid-in capital) 비율 20%로 예상(기획재정부 3. 27)

15)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http://gjs.mof.gov.cn/pindaoliebiao/gongzuodongtai/201504/t20150415\\_1217200.html](http://gjs.mof.gov.cn/pindaoliebiao/gongzuodongtai/201504/t20150415_1217200.html)).

16) AIIB([http://aiibank.org/yatouhang\\_04.html](http://aiibank.org/yatouhang_04.html)).

17) 홍콩 문화보(文匯報)는 AIIB 본부를 北京 西城区에 신축 중인 豐盛국제금융센터로 전망한다고 보도.

18) 1949년생으로 World Bank 상임이사(1988), 중국 재무차관 및 ADB 부총재(2003~08), 중국투자공사(CIC) 이사장(2008~13), 국제금융공사(CICC) 이사장(2013~14년) 역임.

19) 『朝日新聞』(2015. 4. 3), 「『日米、投資銀反対は誤り』 外交的な失敗指摘 米ピーターソン研究所・バーグステン氏」. AIIB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에서 벗어난다는 의도를 밝힌 바 있고, 美 PIIE의 C. Fred Bergsten 소장은 “이사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분율] AIIB 지분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참여국 논의가 진행 중이나, 2014년 10월 21개국이 서명한 MOU에 “GDP를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의사 등 기타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라고 규정함.

- AIIB 지분율은 현존 MDB의 방식을 참고하여 산정될 것이며, WB가 2010년에 정한 지분율 산출공식<sup>20)</sup>은 『경제력(75%) + 재원기여도(20%) + 개발기여도(5%)』 임.
- IMF의 2010년 쿼터 계산식<sup>21)</sup>은 『(0.5Y + 0.3O + 0.15V + 0.05R)×0.95』 임.
- AIIB 창립회원국이 주요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지분율 순위를 보면 WB와 IMF에서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은 IMF 13위(1.41%), WB 12위(1.72%), ADB 5위(5.06%)를 차지함(참고 3).

■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 산정방식을 참고하고 AIIB 지분율 산정 시 주요 변수로 논의되는 GDP를 기준으로 하여, 70:30, 75:25의 비율 및 러시아의 역내·외국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창립회원국의 지분율 및 순위를 시산해 보았음(표 2 및 참고 4).

표 2. AIIB 창립회원국의 지분율 순위(러시아 역외)

(단위: %)

<1. 역내·역외=70:30>

<2. 역내·역외=75:25>

| 순위 | 1. 시장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2. PPP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3. 시장환율<br>GDP:PPP=6:4 |           | 순위 | 1. 시장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2. PPP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3. 시장환율<br>GDP:PPP=6:4 |           |
|----|-----------------------|-----------|------------------------|-----------|------------------------|-----------|----|-----------------------|-----------|------------------------|-----------|------------------------|-----------|
|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국가명                    | 예상<br>지분율 |
| 1  | 중국                    | 30.03     | 중국                     | 27.83     | 중국                     | 28.79     | 1  | 중국                    | 32.18     | 중국                     | 29.82     | 중국                     | 30.85     |
| 2  | 인도                    | 6.80      | 인도                     | 11.96     | 인도                     | 9.71      | 2  | 인도                    | 7.29      | 인도                     | 12.81     | 인도                     | 10.40     |
| 3  | 호주                    | 5.43      | 독일                     | 4.42      | 독일                     | 4.75      | 3  | 호주                    | 5.82      | 인니                     | 4.48      | 인니                     | 3.99      |
| 4  | 독일                    | 4.99      | 러시아                    | 4.23      | 인니                     | 3.72      | 4  | 한국                    | 4.84      | 독일                     | 3.69      | 독일                     | 3.96      |
| 5  | 한국                    | 4.52      | 인니                     | 4.18      | 한국                     | 3.67      | 5  | 독일                    | 4.16      | 러시아                    | 3.52      | 한국                     | 3.93      |
| 6  | 프랑스                   | 3.78      | 브라질                    | 3.67      | 프랑스                    | 3.50      | 6  | 인니                    | 3.36      | 한국                     | 3.23      | 호주                     | 3.64      |
| 7  | 영국                    | 3.57      | 프랑스                    | 3.10      | 호주                     | 3.40      | 7  | 프랑스                   | 3.15      | 브라질                    | 3.06      | 프랑스                    | 2.91      |
| 8  | 브라질                   | 3.16      | 한국                     | 3.01      | 브라질                    | 3.37      | 8  | 터키                    | 3.10      | 사우디                    | 2.94      | 터키                     | 2.90      |
| 9  | 인니                    | 3.14      | 영국                     | 3.00      | 러시아                    | 3.35      | 9  | 영국                    | 2.97      | 터키                     | 2.74      | 사우디                    | 2.88      |
| 10 | 이태리                   | 2.95      | 사우디                    | 2.75      | 영국                     | 3.33      | 10 | 사우디                   | 2.79      | 프랑스                    | 2.58      | 브라질                    | 2.81      |
| 11 | 터키                    | 2.89      | 이태리                    | 2.68      | 이태리                    | 2.84      | 11 | 브라질                   | 2.63      | 영국                     | 2.50      | 러시아                    | 2.79      |
| 12 | 러시아                   | 2.72      | 터키                     | 2.56      | 터키                     | 2.70      | 12 | 이태리                   | 2.46      | 이란                     | 2.47      | 영국                     | 2.78      |
| 13 | 사우디                   | 2.61      | 이란                     | 2.30      | 사우디                    | 2.69      | 13 | 러시아                   | 2.27      | 이태리                    | 2.23      | 이태리                    | 2.37      |
| 14 | 스페인                   | 1.92      | 스페인                    | 1.92      | 이란                     | 2.04      | 14 | 이란                    | 1.82      | 호주                     | 1.95      | 이란                     | 2.18      |
| 15 | 이란                    | 1.70      | 호주                     | 1.82      | 스페인                    | 1.92      | 15 | 스페인                   | 1.60      | 태국                     | 1.85      | 태국                     | 1.66      |

주: 창립회원국(57개국) 기준으로 최근 3년(2011~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및 World Economic Outlook(IMF) 활용하여 계산.

20) Office of the Corporate Secretary(2010), *World Bank Group Voice Reform: Enhancing Voice and Participation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in 2010 and Beyond*, Development Committee. 경제력(75%)은 GDP 활용하여 시장환율 기준 60%와 PPP 환율 기준 40%로 산정, 재원기여도(20%)는 WB 내 양허성기금(IDA)을 기준으로 산정함.

21) IMF Policy Paper(2014), *Quota Formula-Data Update and Further Considerations-Statistical Appendix*. Y는 최근 3년 연평균 GDP(시장환율 기준 60%, PPP 환율 기준 40%)이고, O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수지 및 수입으로 나타낸 개방도, V는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변동성, R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으로 나타낸 외환보유액이며, 0.95는 조정계수임.



- 러시아는 역내국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으며,<sup>22)</sup> 최근 확정된 창립회원국에서 20개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sup>23)</sup> 유럽 국가로 인식되는 일부 국가가 역내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역내외 국가간 지분비율, 러시아의 역내국 인정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여회원국의 지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시장환율과 PPP 환율기준 GDP를 6:4로 적용 시, 한국의 지분율은 3.35~3.93%(5~9위)로 추정됨.

- 러시아를 역외국으로 가정하고 시장환율과 PPP 환율기준 GDP를 6:4로 적용했을 때, 한국의 지분율은 역내외 지분율을 70:30으로 적용 시 3.67%(5위), 75:25로 적용 시 3.93%(5위)를 차지함(표 2).
- 러시아를 역내국으로 보면 러시아가 역외국일 때보다 전반적으로 지분율과 순위가 하락하게 되며, 시장환율과 PPP 환율기준 GDP를 6:4로 적용 시, 한국의 지분율은 역내외 지분비율을 70:30 및 75:25로 적용함에 따라 각각 3.35%(9위) 및 3.59%(6위)를 차지함(참고 4).
- 특히 러시아가 역내국으로 인정될 경우 인도와 2대 주주 자리를 두고 경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분율 및 순위는 러시아에 밀리게 되고, 역외국 중 GDP 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등의 지분율 역시 늘어나게 됨.
- 따라서 러시아가 역내국으로 인정되고 역내외 지분비율을 70:30으로 하는 경우 한국의 지분율 및 순위가 가장 불리하며, 이 경우에는 중국의 지분율 역시 26.27%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가장 낮아지게 됨.

## 4. 다자개발은행(MDB)의 특징과 책임성 · 투명성 보장 제도

### 가. 다자개발은행의 구성 및 특징<sup>24)</sup>

- [ADB]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촉진을 목표로 1966년 설립되었으며, 최대주주인 일본(15.7%)과 미국(15.6%)을 비롯하여 67개국이 참여하고 있음(한국 지분율 5.1%).
-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 회원국이 임명한 Governors로 구성된 총회(Board of Governors)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수행하며, 역대 총재는 모두 일본 출신임.
  - 이사회는 역내 8개, 역외 4개 그룹을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미국·일본·중국은 단독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외 회원국은 복수국가가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별로 1명의 이사를 선임함.
  - 사무국(management)은 총재(1명), 부총재(6명), 사무총장(1명)으로 구성됨(2015. 3 기준).

22) 『한국경제』(2015. 4. 14), 「중국, 본부-총재직 독식...안건 거부권은 포기할 듯」.

23) Reuters(2015. 4. 15), “China says 57 countries to be founding members of AIIB.”

24)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지분율과 지배구조는 [참고 5]에 비교되어 있음.

- ADB가 2013년 지원한 개발자금은 총 210억 달러로, 지역별로는 동남아(29.5%)와 남아시아(28.4%), 분야별로는 에너지(26.8%)와 운송·IT기술(24.5%)에 집중됨.
- ADB가 추진하는 장기전략 'Strategy 2020'에 포함된 주력 지원분야는 인프라 개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이슈, 지역협력·통합, 금융분야 개발, 교육 등임.

■ [World Bank] 중소득 개도국에 중장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IBRD, 저소득 개도국에 양허성자금을 지원하는 IDA(국제개발협회) 등으로 구성됨.

- IBRD 회원국은 188개국이며 미국이 17% 이상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일본 7.92%, 중국 5.11%, 한국 1.72% 지분을 각각 확보함(2015. 4 기준).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Board of governors)이나, 대부분의 권한을 25명의 이사<sup>25)</sup>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에 위임함.
- 2014년 IBRD의 개도국 지원금액은 약 186억 달러(commitment 기준)이며, 지역별로는 유럽·중앙아시아(25%), 남미·캐리비안 지역(25%), 동아시아·태평양(22%) 등으로 배분함.

■ [IDB] 중남미개도국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대 출자국(30%)인 미국을 비롯하여 48개국<sup>26)</sup>이 참여함.

- IDB는 2014년 168개 사업에 대해 138억 달러(승인 기준)를 지원하였으며, 주로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42%)과 인프라·환경(38%) 부문에 집중함.
-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는 14명으로 구성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단독 이사를, 나머지 국가는 국가그룹별 이사를 선정함.

■ [EBRD] 냉전 이후 중·동 유럽 경제재건과 지속가능하고 개방된 시장경제 도입·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등 64개국<sup>27)</sup>이 참여함.

- 미국의 지분율이 10.1%로 가장 높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이 각각 8.6%, 한국은 1.0%를 확보함(2015. 4 기준).
- 주요 조직으로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Board of Governors), 2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s) 등이 있음.
- 2013년 85억 유로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산업·기업활동(31%),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28%), 에너지(21%), 인프라(20%) 순으로 나타남.

25) 5대 출자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각각 1명의 이사를 임명하고,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단독으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며, 나머지 국가는 지역그룹을 형성하여 이사를 선출함.

26) 48개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중남미 26개 개도국, 역외 20개국으로 구성됨.

27) 64개국 외에 EU, EIB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표 3. 주요 다자개발은행 지배구조

|            | AIIB(잠정)   | ADB  | WB   |
|------------|--|--|--|
| 설립연도       | 2015년 말 예정   | 1966년  | 1944년  |
| 본부         | 중국 베이징   | 필리핀 마닐라  | 미국 워싱턴   |
| 설립목적       |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수요<br>부응, 경제통합 촉진                                       | 아태지역 경제성장,<br>경제협력 촉진                                  | 전쟁 피해복구자금 지원,<br>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
| 회원국        | 57개국   | 67개국<br>(역내 48, 역외 19)                                 | 188개국<br>(IBRD 기준)                                     |
| 주요국<br>지분율 | 미정   | 일본 15.7%<br>미국 15.6%<br>중국 6.5%<br>한국 5.1%             | 미국 17.1%<br>일본 7.9%<br>중국 5.1%<br>한국 1.7%              |
| 지배구조       | Board of Governors(총회)<br>Board of Directors(이사회)<br>Management(사무국)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Management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Management |
| 수권자본금      | 1,000억 USD(잠정)   | 1,638억 USD   | 2,328억 USD   |
| 투표권        | 미정   | 20%(기본)+80%(자본금비율)<br>역내 65%, 역외 35%                   | 5.5%(basic vote)<br>+84.5%(share vote)                 |

자료: 각 기구 홈페이지 및 Annual Report 참고하여 정리.

## 나. 다자개발은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보장 제도<sup>28)</sup>

■ [투명성·정보공시] 주요 MDB는 자체작성 서류, 이사회 결정, 기관 및 지배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 (ADB) Public Communication Policy(2005)와 500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PCP(2011) 시행으로 ADB 내 주요 서류의 조기 공개 및 프로젝트 단계별 서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IDB, EBRD) IDB는 새로운 Access to Information Policy(2011) 시행으로 서류 및 정보 접근을 최대한 허용하고, EBRD는 6번째 리뷰를 거친 Public Information Policy를 통해 ① 기관 ② 전략 및 정책 ③ 프로젝트 ④ 책임성 및 거버넌스 관련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함.

■ [책임성] MDB는 시행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관련 활동의 청렴성(integrity)을 조사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추진 프로젝트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에 대한 책임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을 시행함.

- (ADB)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는 기관과 운영의 효과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며, Offic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에서 부정부패 예방, 감독, 조사 기능을 수행함.<sup>29)</sup>

28)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제도는 [참고 6]에 비교되어 있음.

29) 2003년 도입된 책임성 메커니즘은 Problem-Solving 및 Compliance Review 기능을 도입하여 자체 운영규정과 절차를

- (IDB)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가 프로젝트와 성과를 평가하고 총회 위임에 따라 Independent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Mechanism을 도입했으며, ADB와 유사한 Consultation 및 Compliance Review 단계로 구성됨.
- (EBRD) Office of Chief Compliance Officer가 관련활동의 청렴성 제고를 담당하고, 환경 및 사회정책을 통해 ① 프로젝트 이행 및 운영에서의 고객과의 책임과 역할 정의 ② 높은 환경 및 사회편익 촉진을 위한 전략적 목표 수립 ③ 모든 활동에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주류화를 도모함.

## 다. 기존 MDB 체계의 문제점

■ [소유구조] 일부 선진국이 주요 출자국으로서의 높은 지분을 확보하고, 경제력 변동에 따른 지분조정에 미온적이거나 총재가 특정국 인사로 선임되며, 거부권 행사로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음.

- WB의 경우 중국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지분율 상향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분율 조정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
- ADB 출범(1966) 이래 9명의 총재가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미국은 WB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veto power, 지분율 15% 이상 확보국가)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의사결정을 좌우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AIIB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선언이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고 유럽 내 미국 우방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AIIB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sup>30)</sup>

■ [Standard & Regulation] 기존 MDB는 잘 설계된 거버넌스와 표준화된 규율을 통해 의사결정 및 사업이행, 평가 등의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에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일례로 녹색기후기금(GCF)은 기존 지구환경금융기금(GEF)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사업 집행시간 장기화 등을 이유로 개도국이 별도의 기금 설립을 요구하여 설립된 것임.
- 중국은 AIIB를 통해 WB나 ADB보다 인프라 개발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MDB에서 갖추어진 정교한 거버넌스 규제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sup>31)</sup>

준수하고 프로젝트 관련문제 해결 도모

30) Wei, L. and Davis, B.(2015), "China Forgoes Veto Power at New Bank to Win Key European Nations' Support," *Wall Street Journal*. (March 23)

31) Yun Sun(2015), "China's AIIB challenges," *Pacific Forum CSIS*. (March 11)

## 5. 주요 쟁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 가. ADB와 AIIB 간 상충논란 및 보완성

■ 기존 MDB와 AIIB가 경쟁 또는 상충관계라는 논란이 있으나, AIIB는 유럽·중동·브라질·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향후에도 추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ADB보다 외연이 확대되고 다양한 인프라 분야로 사업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음.

- ADB가 환경·지역협력·교육·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의 60% 이내에 그치고, 연간 7,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역내 모든 인프라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임.
- 지역적으로는 ADB가 인도·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컸던 반면, AIIB는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수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그림 6·그림 7).
- 따라서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AIIB가 중앙·동남·남아시아와 같은 주력지역뿐 아니라 향후 ADB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북아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기존 MDB와의 경합보다는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주요 ADB 지원 수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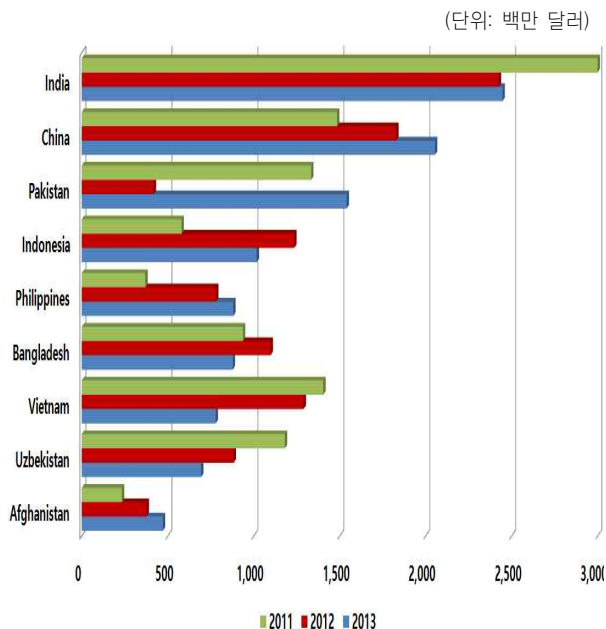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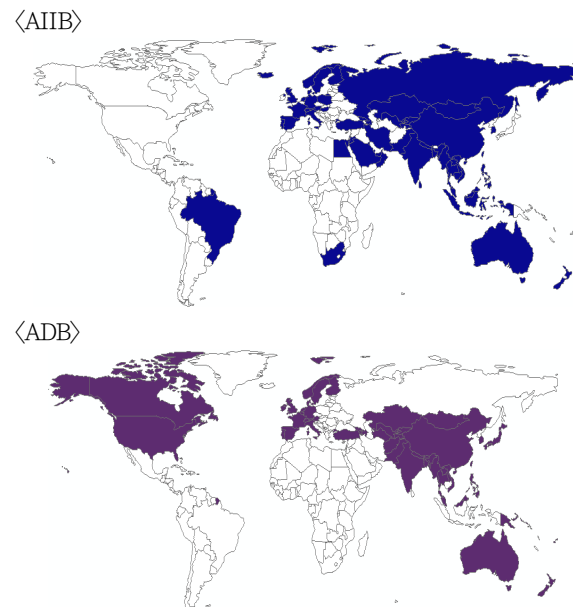


그림 7. AIIB와 ADB 회원국 현황



자료: "Recipients by Approval Excluding Cofinancing," ADB Annual Reports. 자료: 저자 작성.

## 나. 동북아 개발 및 통일재원 조달에 활용

■ 우리나라는 AIIB 참여를 통해 동북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통일기반 조성에 AIIB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DB 투자자금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60% 가량 집중되면서 동북아투자가 소홀했던 데다 특히 북한의 경우 투자회수가 어려운 최빈국이고 정치적 거버넌스 기준도 부합하지 않아 투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반면 북한·중국 동북 3성·러시아 극동·몽골 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개발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표 4),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을 통한 동북아지역 개발 모색이 진행 중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 Project Implementation Unit)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함.

- 다자기구인 GTI를 AIIB의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가 동북아지역 개발설계자로 자리매김할 경우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전환함으로써 AIIB의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음.

표 4. 동북아 인프라투자 소요 추정치

(단위: 억 달러)

| 대상 기간 |         | Katz(1998) | Hiraki(2003) | 추원서·곽경탁(2004) | Kawai(2013) |
|-------|---------|------------|--------------|---------------|-------------|
| 지역    | 중국 동북3성 | -          | 612          | 636           | 488         |
|       | 러시아 극동  | -          | 413          | 18            | 49          |
|       | 몽골      | -          | 46           | 1             | 17          |
|       | 북한      | -          | 531          | 12            | 53          |
|       | 국경간     | -          | -            | -             | 22          |
| 수요 총액 |         | -          | 1,601        | -             | -           |
| 연간 수요 |         | 75         | 160          | 667           | 629         |

자료: Katz(1998); Hiraki(2003); 추원서·곽경탁(2004); Kawai(2013).

## 다. 신금융질서 참여 및 회원국 간 국제협력 강화

■ AIIB 설립으로 세계 금융체계모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은 분명한 만큼 국익 차원에서 신금융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AIIB 내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연계 모색도 중요함.

- 향후 우리나라는 AIIB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지분을 유지가 어려우나, AIIB 참여국 중 국가신용도가 높고, 자본금을 제공할 수 있는 비차입 회원국(non-borrowing members)과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향후 AIIB 설계 및 운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야 함(참고 7).
- o AIIB 내에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확보한 회원국의 지분이 확대될수록 채권발행을 통한 AIIB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추가 가입으로 인한 지분을 저하보다는 우방국의 AIIB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와 입장을 공조할 수 있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AIIB 운영을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긴요함.

■ 특히 AIIB 설립과정에서 기존 MDB 등이 갖추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AIIB는 기존 MDB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벤치마킹함으로써 인프라개발 사업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존 MDB가 갖춘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장치 마련도 필요함.
- 기존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투명성이나 사업진행에서 유발될 수 있는 사회·환경문제 등의 평가메커니즘 구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sup>32)</sup>

## 라. 인프라 투자수요에 대비한 정책지원 강화

■ 향후 AIIB 출범과 맞물려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수요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인프라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가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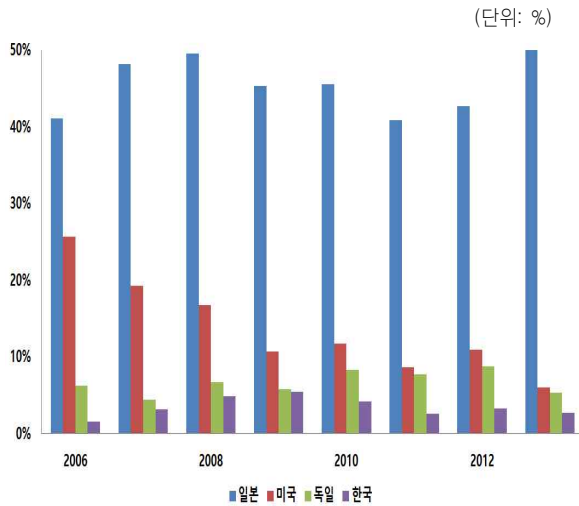
- 최근 주요국의 아시아지역 인프라 관련 ODA 경우, 일본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5%를 밑돌고 있으나, 향후 AIIB를 통한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역내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ODA 연계 인프라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그림 8).
- 특히 우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표 5) 최근 해외사업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AIIB 발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sup>33)</sup>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
- 또한 KSP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면서 국내 민간기업의 개도국 인프라사업 참여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음. KIEP

32)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설립 초기부터 지배구조를 포함한 운영지침을 논의하는 설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기금운영을 위한 이사회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음.

33) AIIB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화한 인프라 관련 주력분야는 에너지와 전력, 교통, 통신, 농촌 인프라 및 농업 개발, 물 공급 및 위생, 환경보호, 도시개발 및 물류 등임.



그림 8. 주요국의 對아시아 인프라 관련 ODA 지원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5. 4. 1).

표 5. 우리나라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 순위

| 부문           | 주요 기업 경쟁력(전세계 순위)    |
|--------------|----------------------|
| 건축           | 삼성종합건설 10위           |
| 전력           | 현대건설 2위, 삼성종합건설 8위   |
| 산업건설         | 현대건설 4위, 포스코건설 5위    |
| 제조업건설        | GS건설 10위             |
| 하수처리시설<br>건설 | 삼성엔지니어링 3위           |
| 정유           | 삼성엔지니어링 6위, 대림산업 10위 |

자료: ENR(Engineering News Record), 재인용: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2015).

## 참고 1. 인프라(Infrastructure)의 범위 설정

- AIIB는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지역개발은행을 표방하는바, AIIB가 지원하고자 하는 인프라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필요함.

참고 표 1. 관련연구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인프라 범위

| 구분                            | 내용  | 인프라 범위   |
|-------------------------------|---|--|
| ADB·ADBI(2009)                |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 분석                               | 에너지(전기), 통신(휴대전화, 유선전화), 운송(공항, 항구, 철도, 도로), 물·위생  |
| Kawai(2013)                   |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 분석                                       | 운송, 에너지, ICT, 환경   |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보고서에는 인프라 경쟁력 점수와 순위가 포함 | 인프라 전반, 도로, 철도, 항구, 항공, 전력 공급, 휴대전화·유선전화보급   |
| OECD DAC CRS                  | 공여국이 지원하는 원조분야에 '사회적 인프라'와 '경제적 인프라'가 포함                  | -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인구관리, 물·위생, 정부·시민사회, 기타(복지, 주거 등)<br>- 경제적 인프라 및 서비스: 운송·저장, 통신, 에너지, 은행·금융서비스, 비즈니스·기타 서비스 |

- AIIB는 주로 에너지, 통신, 운송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거나 교육, 보건, 금융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인프라 개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함.

## 참고 2.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경쟁력 비교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구성하는 12개 항목 중 '인프라'의 점수와 순위 비교

|                   | 2006~07 <sup>34)</sup> |      | 2014~15 |      |
|-------------------|------------------------|------|---------|------|
|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 홍콩                | 4                      | 6.22 | 1       | 6.68 |
| 싱가포르              | 3                      | 6.34 | 2       | 6.54 |
| 일본                | 6                      | 6.16 | 6       | 6.13 |
| 대만                | 21                     | 5.33 | 11      | 5.82 |
| 한국                | 23                     | 5.21 | 14      | 5.74 |
| 아시아 선진국 평균        | -                      | 5.85 | -       | 6.18 |
| 전체 선진국 평균         | -                      | 5.1  | -       | 5.50 |
| 말레이시아             | 20                     | 5.33 | 25      | 5.46 |
| 러시아               | 66                     | 3.26 | 39      | 4.82 |
| 중국                | 52                     | 3.72 | 46      | 4.66 |
| 태국                | 29                     | 4.68 | 48      | 4.58 |
| 인도네시아             | 78                     | 2.81 | 56      | 4.37 |
| 스리랑카              | 77                     | 2.81 | 75      | 4.02 |
| 베트남               | 90                     | 2.6  | 81      | 3.74 |
| 인도                | 62                     | 3.38 | 87      | 3.57 |
| 필리핀               | 88                     | 2.63 | 91      | 3.49 |
| 파키스탄              | 69                     | 3.15 | 119     | 2.65 |
| 방글라데시             | 100                    | 2.3  | 127     | 2.44 |
| 네팔                | 117                    | 1.83 | 132     | 2.14 |
| 아시아 개도국/신흥국<br>평균 | -                      | 3.21 | -       | 3.83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http://reports.weforum.org/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4-2015/downloads/>(검색일: 2015. 4. 3).

34) 측정방법론의 변화로 2006~07년 이전의 자료는 이용이 불가능함.

### 참고 3. AIIB 창립회원국의 ADB, WB, IMF 지분율 순위

| 순위 | ADB   |      | IMF  |      | WB   |      |
|----|-------|------|------|------|------|------|
| 1  | 중국    | 6.47 | 독일   | 6.11 | 중국   | 5.11 |
| 2  | 인도    | 6.36 | 프랑스  | 4.50 | 독일   | 4.63 |
| 3  | 호주    | 5.81 | 영국   | 4.50 | 프랑스  | 4.15 |
| 4  | 인도네시아 | 5.17 | 중국   | 3.99 | 영국   | 4.15 |
| 5  | 한국    | 5.06 | 이탈리아 | 3.31 | 인도   | 3.21 |
| 6  | 독일    | 4.34 | 사우디  | 2.93 | 사우디  | 3.19 |
| 7  | 말레이시아 | 2.73 | 러시아  | 2.49 | 러시아  | 2.98 |
| 8  | 필리핀   | 2.39 | 인도   | 2.44 | 이탈리아 | 2.60 |
| 9  | 프랑스   | 2.34 | 네덜란드 | 2.16 | 스페인  | 2.03 |
| 10 | 파키스탄  | 2.19 | 브라질  | 1.78 | 브라질  | 2.01 |
| 11 | 영국    | 2.05 | 스페인  | 1.69 | 네덜란드 | 2.00 |
| 12 | 이탈리아  | 1.82 | 스위스  | 1.45 | 한국   | 1.72 |
| 13 | 뉴질랜드  | 1.54 | 한국   | 1.41 | 이란   | 1.63 |
| 14 | 태국    | 1.37 | 호주   | 1.36 | 스위스  | 1.56 |
| 15 | 네덜란드  | 1.03 | 스웨덴  | 1.00 | 호주   | 1.45 |

주: 창립회원국 57개국(2015년 4월 15일자 기준)의 순위이며, IMF의 중국 지분율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Asian Development Bank Financial Report(2013) 참고.

### 참고 4. AIIB 창립회원국의 지분율 순위(러시아 역내)

<1. 역내:역외=70:30>

(단위: %)

| 순위 | 1. 시장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2. PPP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3. 시장환율<br>GDP:PPP=6:4 |       |
|----|-----------------------|-------|------------------------|-------|------------------------|-------|
|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 1  | 중국                    | 27.20 | 중국                     | 25.53 | 중국                     | 26.27 |
| 2  | 러시아                   | 6.60  | 인도                     | 10.97 | 인도                     | 8.85  |
| 3  | 인도                    | 6.16  | 러시아                    | 5.77  | 러시아                    | 6.14  |
| 4  | 독일                    | 5.48  | 독일                     | 5.15  | 독일                     | 5.35  |
| 5  | 호주                    | 4.92  | 브라질                    | 4.27  | 프랑스                    | 3.94  |
| 6  | 프랑스                   | 4.16  | 인니                     | 3.83  | 브라질                    | 3.79  |
| 7  | 한국                    | 4.09  | 프랑스                    | 3.61  | 영국                     | 3.75  |
| 8  | 영국                    | 3.93  | 영국                     | 3.49  | 인니                     | 3.40  |
| 9  | 브라질                   | 3.47  | 이태리                    | 3.12  | 한국                     | 3.35  |
| 10 | 이태리                   | 3.25  | 한국                     | 2.77  | 이태리                    | 3.20  |
| 11 | 인니                    | 2.84  | 사우디                    | 2.52  | 호주                     | 3.10  |
| 12 | 터키                    | 2.62  | 터키                     | 2.35  | 터키                     | 2.47  |
| 13 | 사우디                   | 2.36  | 스페인                    | 2.24  | 사우디                    | 2.45  |
| 14 | 스페인                   | 2.11  | 이란                     | 2.11  | 스페인                    | 2.16  |
| 15 | 이란                    | 1.54  | 호주                     | 1.67  | 이란                     | 1.86  |

<2. 역내:역외=75:25>

(단위: %)

| 순위 | 1. 시장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2. PPP환율GDP<br>3개년도 평균 |       | 3. 시장환율<br>GDP:PPP=6:4 |       |
|----|-----------------------|-------|------------------------|-------|------------------------|-------|
|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국가명                    | 예상지분율 |
| 1  | 중국                    | 29.14 | 중국                     | 27.36 | 중국                     | 28.14 |
| 2  | 러시아                   | 7.08  | 인도                     | 11.75 | 인도                     | 9.49  |
| 3  | 인도                    | 6.60  | 러시아                    | 6.19  | 러시아                    | 6.58  |
| 4  | 호주                    | 5.27  | 독일                     | 4.29  | 독일                     | 4.46  |
| 5  | 독일                    | 4.57  | 인니                     | 4.11  | 인니                     | 3.64  |
| 6  | 한국                    | 4.38  | 브라질                    | 3.56  | 한국                     | 3.59  |
| 7  | 프랑스                   | 3.47  | 프랑스                    | 3.01  | 호주                     | 3.32  |
| 8  | 영국                    | 3.27  | 한국                     | 2.96  | 프랑스                    | 3.28  |
| 9  | 인니                    | 3.05  | 영국                     | 2.91  | 브라질                    | 3.16  |
| 10 | 브라질                   | 2.89  | 사우디                    | 2.70  | 영국                     | 3.13  |
| 11 | 터키                    | 2.80  | 이태리                    | 2.60  | 이태리                    | 2.66  |
| 12 | 이태리                   | 2.71  | 터키                     | 2.51  | 터키                     | 2.64  |
| 13 | 사우디                   | 2.53  | 이란                     | 2.26  | 사우디                    | 2.62  |
| 14 | 스페인                   | 1.76  | 스페인                    | 1.86  | 이란                     | 1.99  |
| 15 | 이란                    | 1.65  | 호주                     | 1.79  | 스페인                    | 1.80  |

주: 창립회원국(57개국) 기준으로 최근 3년(2011~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및 World Economic Outlook(IMF) 활용하여 계산.

## 참고 5.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지분율과 지배구조

|         | AIIB(잠정)  | ADB   | WB  | IDB  | EBRD   |
|---------|---|---|---|--|--|
| 설립 연도   | 2014년   | 1966년   | 1944년   | 1959년  | 1991년  |
| 본부      | 중국 베이징  | 필리핀 마닐라   | 미국 워싱턴  | 미국 워싱턴   | 영국 런던  |
| 설립 목적   | 지역 내 상호연결성과 경제통합 촉진,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 아태지역 경제성장, 경제협력 촉진  | 전쟁 피해 복구자금 지원, 개도국에의 개발자금 지원                              |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 지역통합   | 중동구체제 전환 촉진, 경제발전에 기여  |
| 회원국     | 57개국<br>(2015.4. 15 확정)                                   | 67개국<br>(역내 48, 역외 19)  | 188개국(IBRD 기준)  | 48개국   | 64개국 및 EU, EIB   |
| 주요국 지분율 | 미정  | 일본 15.7%<br>미국 15.6%<br>중국 6.5%<br>인도 6.4%<br>호주 5.8%   | 미국 17.1%<br>일본 7.9%<br>중국 5.1%<br>독일 4.6%<br>영국, 프랑스 4.2% | 미국 30.0%<br>브라질 11.2%<br>아르헨티나 11.2%<br>멕시코 7.2%<br>일본 5.0%  | 미국 10.1%<br>프랑스 8.6%<br>독일 8.6%<br>이탈리아 8.6%<br>일본 8.6%            |
| 한국 지분율  | 미정  | 5.1%  | 1.7%  | 0.004%   | 1.0%   |
| 지배 구조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Management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Management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Management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Executive Directors<br>· Management   | ·Board of Governors<br>·Board of Directors<br>·Executive Committee |
| 수권 자본금  | USD 100billion<br>(잠정)                                    | USD 163.8billion  | USD 232.8billion  | USD 170.9billion   | EUR 30billion  |
| 투표권     | 미정  | 20%(basic vote, 회원국 균등)<br>+80%(proportional vote, 각 회원국 자본금 비율)이며, 2013년 말 기준 역내 65.125%, 역외 34.875% | 5.5%(basic vote)<br>+84.5%(share vote)                    | 역내 차입(50.01%)<br>비차입 회원국(34,007%)<br>역외 비차입 회원국(15,979%)<br>(2009년 2월 기준)<br>(5)<br>헌장(Charter) 개정에는 총 투표권 3/4 찬성 필요 | 비차입회원국의 자본금 지분이 80% 상회   |

자료: 각 기구 홈페이지 및 Annual Report 참고하여 정리.

## 참고 6.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제도

|            | ADB  | IDB   | EBRD  |
|------------|--|---|---|
| 투명성 및 정보공시 | <input type="checkbox"/> Public Communication Policy<br>- ADB 및 프로젝트 서류 공개   | <input type="checkbox"/> Access to Information Policy<br>- 최대한의 정보접근 허용 및 정보제공 제약에 대한 설명  | <input type="checkbox"/> Public Information Policy<br>- 기관, 전략 및 정책, 프로젝트, 책임성 및 지배관련 정보 공개   |
| 책임성        | <input type="checkbox"/>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br><br><input type="checkbox"/> Offic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 <input type="checkbox"/>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br>- 내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감독<br><br><input type="checkbox"/> Office of Institutional Integrity | <input type="checkbox"/>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br>-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br><br><input type="checkbox"/>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br>- 환경, 사회적 고려를 모든 활동에 주류화<br><br><input type="checkbox"/> Office of the Chief Compliance Officer(OCCO) |
|            | <input type="checkbox"/> Accountability Mechanism<br>- Problem Solving & Compliance Review Function<br>ADB 내 감독, 평가시스템 등을 보완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기능 | <input type="checkbox"/> Independent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Mechanism<br>- Consultation 및 Compliance Review                                   | <input type="checkbox"/> Project Complaint Mechanism(PCM)<br>- Compliance Review Function & Problem-solving Initiative  |

## 참고 7. AIIB 창립회원국의 상위 신용등급 국가 지분율

| 국가명       | 구분 | S&P | Moody's | Fitch | 75%:25%       | 70%:30%       |
|-----------|----|-----|---------|-------|---------------|---------------|
| 스위스       | 역외 | AAA | Aaa     | AAA   | 0.64%         | 0.77%         |
| 룩셈부르크     | 역외 | AAA | Aaa     | AAA   | 0.06%         | 0.07%         |
| 독일        | 역외 | AAA | Aaa     | AAA   | 3.96%         | 4.75%         |
| 스웨덴       | 역외 | AAA | Aaa     | AAA   | 0.56%         | 0.67%         |
| 덴마크       | 역외 | AAA | Aaa     | AAA   | 0.33%         | 0.39%         |
| 싱가포르      | 역내 | AAA | Aaa     | AAA   | 0.95%         | 0.88%         |
| 네덜란드      | 역외 | AA+ | Aaa     | AAA   | 0.90%         | 1.08%         |
| 노르웨이      | 역외 | AAA | Aaa     | AAA   | 0.47%         | 0.57%         |
| 오스트리아     | 역외 | AA+ | Aaa     | AA+   | 0.44%         | 0.53%         |
| 핀란드       | 역외 | AA+ | Aaa     | AAA   | 0.27%         | 0.32%         |
| 호주        | 역내 | AAA | Aaa     | AAA   | 3.64%         | 3.40%         |
| 영국        | 역외 | AAA | AA1     | AA+   | 2.78%         | 3.33%         |
| 프랑스       | 역외 | AA  | Aa1     | AA    | 2.91%         | 3.50%         |
| 쿠웨이트      | 역내 | AA  | Aa2     | AA    | 0.59%         | 0.55%         |
| 사우디아라비아   | 역내 | AA- | Aa3     | AA    | 2.88%         | 2.69%         |
| 뉴질랜드      | 역내 | AA  | Aaa     | AA    | 0.46%         | 0.43%         |
| 카타르       | 역내 | AA  | Aa2     | 0     | 0.63%         | 0.59%         |
| 한국        | 역내 | A+  | Aa3     | AA-   | 3.93%         | 3.67%         |
| <b>소계</b> |    |     |         |       | <b>26.40%</b> | <b>28.19%</b> |
| <b>중국</b> | 역내 | AA- | Aa3     | A+    | <b>30.85%</b> | <b>28.79%</b> |

주: 러시아를 역외국으로 가정하고 시장환율 및 PPP 환율로 적용한 GDP 가중치 6:4 적용.